

제1교시

국어 영역

1

[1 ~ 3] 다음은 ‘세마포르’에 대한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과거에는 먼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시각 통신 수단을 사용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봉화가 있었습니다. 봉화는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세운 봉화대에 불을 붙여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긴 했지만, 특정한 몇 가지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시각 통신 수단이 바로 오늘 말씀 드릴 세마포르입니다. 세마포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1792년에 프랑스에서 발명된 세마포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각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마포르는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세마포르에 쓰인 탑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탑의 지붕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 꼭대기에는 선풍기 날개처럼 회전이 가능한 긴 널빤지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긴 널빤지 양 끝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짧은 널빤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널빤지들의 각도를 각각 조절하면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형태들이 로마자나 숫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청중의 표정을 살피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제시된 예를 같이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각 로마자 A와 숫자 7을 의미하는 형태입니다. 긴 널빤지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쪽의 짧은 널빤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는 A 이고요, 긴 널빤지와 짧은 널빤지 모두가 수평인 형태는 7입니다. 세마포르는 이러한 널빤지의 형태를 탑에서 탑으로 시간차를 두어 차례대로 전달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글자를 하나씩 전달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손가락 세 개를 펴며) 1분에 3개의 글자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글자 100개를 전송하는 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르는 유용한 시각 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처럼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500여 개에 이르는 송수신 탑을 세워 5,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는 세마포르를 활용해 긴박한 상황을 단시간에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③ 앞부분에 화제를 제시하며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화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2. 위 강연에서 제시했을 시각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을 이용한 봉화
○장점: 빠른 메시지 전달
○단점: 특정 메시지만 전달

- ② 세마포르 탑의 구조
긴 널빤지, 짧은 널빤지, 나무 기둥

- ③ 글자를 나타내는 방식
A, 7

- ④ 세마포르를 대체한 모스 부호
A ●-
B -●●●
C -●-●
D -●●

- ⑤ 프랑스의 세마포르 통신망
○송수신 탑: 500여 개
○통신 선로: 약 5,000 Km


3.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학생의 듣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기대하며 정상에 올랐는데 안개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산도 잘 안 보여서 아쉬웠던 적이 있었어. 세마포르에 이용된 탑이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아.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마포르의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고 한 것이 그런 의미이겠구나.”

- ① 강연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강연에 언급된 내용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 ③ 강연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 ④ 강연을 듣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의문을 강연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 ⑤ 강연의 내용이 강연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4 ~ 7] (가)는 ‘반려동물 인수제’를 주제로 한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담

진행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불법 유기도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 동물복지과 김○○ 과장님과 동물 보호 단체 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반려동물 인수제가 무엇인가요?

김 과장: 반려동물 인수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정부에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유기된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야생화된 유기 동물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위탁을 통해 불법 유기를 줄이자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인수제의 위탁 절차와 위탁된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 과장: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이 양육 포기 신청을 한 후 일정한 비용을 내고 동물 보호소에 맡기면, 정부가 나머지 비용을 보조해 반려동물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주인과 연결해 줍니다. 보호소에 위탁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양육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활성화한다면,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동물 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김 과장님의 이런 의견에 대해 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대표: 물론 저도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 인수제를 통해 불법 유기 동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이 입양되는 비율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졌던 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인수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순히 정부의 양육 비용 지원만으로는 입양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인수제는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합법적으로 동물 보호소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입양률이 낮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인수제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불법 유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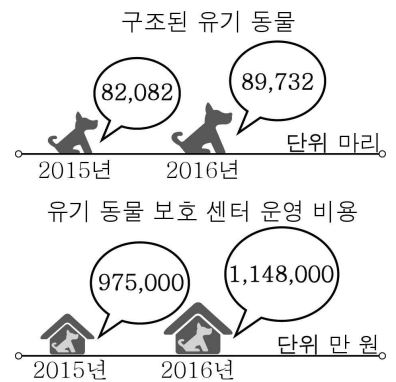
최 대표: 불법 유기된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양육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유기했을 때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진행자: 김 과장님은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최 대표님은 그보다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취자 게시판도 뜨거운데요, 청취자 의견을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 초고

㉠ 탄탄대로, 반려동물 인수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 갑작스럽게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유기 동물 보호 센터의 운영 비용이 약 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가량 증가했다.



한 설문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이유에는 장기간 부채(25.9%), 경제적 문제(11.6%) 등이 있다고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반려동물 주인에게 반려동물을 버리지 말고 무조건 키워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 현재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보호소에 위탁하면 정부에서 입양처를 연결해 주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을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법 유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반려동물 인수제가 시행되면 ㉣ 법적, 양심적 면죄부를 주어 오히려 반려동물의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동물 보호소의 많은 동물들이 예산과 공간의 부족으로 ㉤ 안락사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인수제가 시행되면 보호소의 동물들이 더욱 증가하여 이를 관리하는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인수제의 시행보다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려동물 인수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가)의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대담자의 발언을 정리하고 대담자의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과장’은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③ ‘김 과장’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로 인해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최 대표’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반려동물 인수제 실시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언급하고 있다.
- ⑤ ‘최 대표’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부작용을 거론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가)에서 ‘김 과장’과 ‘최 대표’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려동물 인수제가 시행되더라도 반려동물의 불법 유기를 줄일 수 없다.
- ②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 인수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③ 반려동물 인수제가 도입되면 불법 유기된 동물의 입양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④ 반려동물 인수제가 정착하려면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를 위한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 ⑤ 반려동물 인수제를 통해 입양한 사람에게 양육 비용을 지원하면 입양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6. (가)를 참고하여 세운 작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담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인수제의 개념과 취지를 제시해야겠어.
- ② 대담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인수제 실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해야겠어.
- ③ 대담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입양의 자격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④ 대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반려동물 양육 포기 사유를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언급해야겠어.
- ⑤ 대담에서 언급된, 불법 유기 동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 전체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뜨거운 논란’으로 고친다.
- ② ㉡: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급증하고’로 고친다.
- ③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④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를 첨가한다.
- ⑤ ㉤: 주어와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안락사시키고’로 고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및 내용 구성 방안

- **작문 상황**: ㉠ 자을 동아리에서 ‘스몸비’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누리 소통망(SNS)에 글을 올리려고 한다.
- **글의 내용 구성**
 - 스몸비 관련 사고의 심각성 ㉡
 - 스몸비의 개념과 행동 특성 ㉢
 - 스몸비 문제로 인한 세대 갈등 ㉣
 - 스몸비 예방 캠페인의 목적 ㉤
 - 스몸비 예방 캠페인의 실행 방법 ㉥

(나) 초고

멈춰, 스몸비! 반갑습니다. 저희는 자을 동아리 ‘안전지대’입니다. 얼마 전 인근 학교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길을 건너던 중 오는 차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여러 보행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몸비’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좀비처럼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스몸비는 보행 속도가 느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스몸비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안전지대’는 스몸비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멈춰, 스몸비!’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누리 소통망을 통해 스몸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 스몸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학급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게임하며 공 피하기’ 등의 체험 활동을 기획하여 스몸비의 위험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스몸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스몸비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8.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조건>에 따라 작성한 ㉠의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스몸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것.
 - 직유법을 활용하여 문구의 표현 효과를 높일 것.

- ① 좀비, 좀 비켜!
- ② 안전은 스몸비 앞에서 멈춘다.
- ③ 거북이처럼 걷는 당신, 몹시 거북합니다.
- ④ 스몸비, 닳아 가는 배터리처럼 안전도 방전!
- ⑤ 스몸비 승객 여러분, 이번 역은 병원, 병원입니다.

10. (나)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을 작성하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I. 연구 자료
(ㄱ) 스몐비 관련 교통사고(연도별 건수)

(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인지 거리 변화

II. 전문가 인터뷰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평소에 비해 시야 폭이 56%, 전방 주시율도 15% 정도 감소하여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4%가 보행을 할 때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계도가 시급합니다.”

III. 신문 기사
스몐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A국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B국은 바닥의 표지판이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C국은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차단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① I-(ㄱ)을 첫째 문단과 연결하여, 스몐비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II를 둘째 문단과 연결하여, 위험성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스몐비에 대한 계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III을 셋째 문단과 연결하여, 스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예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I-(ㄴ)과 II를 둘째 문단과 연결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됨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II와 III을 셋째 문단과 연결하여, 스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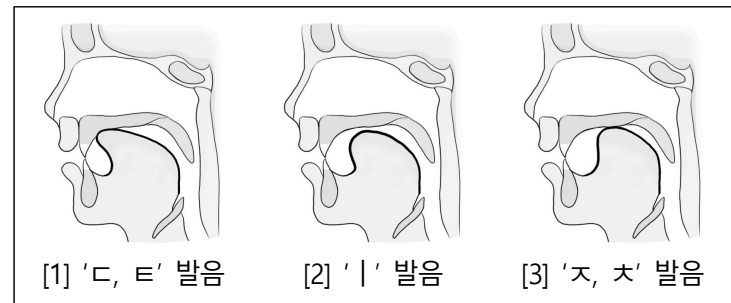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어의 대표적인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ㄴ, ㄷ, ㄱ’이 비음 ‘ㄹ, ㄴ’ 앞에서 비음 ‘ㄹ, 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궁민]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해당한다.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유음화의 예로는 ‘칼날[칼랄]’이 있다. ㉠ 아래의 자음 체계표를 보면, 비음화와 유음화는 그 결과로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방식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음 위치 조음 방식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파열음	ㅂ, ㅍ	ㄷ, ㅌ		ㄱ, ㅋ
파찰음			ㅈ,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가령 ‘해돋이’가 [해도지]로 발음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동화 결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해돋이’가 [해도디]가 아닌 [해도지]로 소리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과 [2]에서 보듯이, ‘ㄷ’과 ‘ㅣ’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달라 ‘디’를 발음할 때는 혀가 잇몸에서 입천장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2]와 [3]을 보면, ‘ㅈ’과 ‘ㅣ’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를 발음할 때는 혀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는 동화 결과 인접한 두 음운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처럼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가 연속되면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되므로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1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② 음운의 동화로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이 바뀌면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 ③ 구개음화와 달리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한 두 음운은 모두 자음이다.
- ④ 구개음화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⑤ 구개음화는 동화의 결과로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12. ㉠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서 일어난 음운 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밤물[밤물]	b. 신라[실라]
c. 굳이[구지]	

- ① a: 비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 ② a: 유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 ③ b: 비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④ b: 유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⑤ c: 구개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13.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활동]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구문 도해’는 문장의 짜임을 그림으로 풀이한 것이다. 국어학자 최현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었다.

이 구문 도해는 ‘그가 새 옷을 드디어 입었다.’라는 문장을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내리그은 세로줄 왼편에는 주성분인 주어(그가), 목적어(옷을), 서술어(입었다)를, 오른편에는 부속성분인 관형어(새), 부사어(드디어)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성분 사이에는 가로로 외줄을 그었는데, 특히 주어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할 때에는 가로로 쌍줄을 그었다. 또한 조사는 앞말과의 사이에 짧은 세로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활동]

다음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시오.

나는 그 책도 샀다.

- ①

나	는	그
책	—	—
도	—	—
샀	—	다

②

나	는	그
책	—	—
도	—	—
샀	—	다

③

나	는	그
책	—	—
도	—	—
샀	—	다

④

나	는	그
책	—	—
도	—	—
샀	—	다

⑤

나	는	그
책	—	—
도	—	—
샀	—	다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없다 [업:따] [없어, 없으니, 없는]

㉠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 각이 진 원은 없다.

있다 [일따] [있어, 있으니, 있는]

(1) ㉢ 【...에】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 그는 학교에 있다.

(2) ㉤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 ① ‘없다’는 장음 부호(:)를 표시하여 어간이 긴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② ‘있다’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두 가지의 뜻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다의어라고 할 수 있군.
- ③ ‘있다(1)’은 주어 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군.
- ④ ‘없다’와 ‘있다(2)’는 품사가 서로 같고, 의미상 반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없다’와 ‘있다’는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단어에 해당하는군.

15.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랏:말쑈·미㉠ 中 國·꺾·에 달·아文文字·쥬·와·로서르스
 뭇·디 아·니 흘·썩·이런 전·츠·로㉡ 어·린 百·씩姓·성·이 니
 르·고·저·흙·배이·셔·도막·츄:내 제㉢·쁘·들 시·러퍼·디:몬
 흥·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흥·야·어엿·비너·겨·새·로
 ·스·물여·똥 字·쥬·를 땡·ᄃ노·니 :사름:마·다:히·여:수·비
 니·겨·날·로·뿌·메㉣ 便 便 安한·키ᄃ고·저흥㉤ 썩르·미니·라
 —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함 따름이다.

- ① ㉠: 조사 ‘에’는 앞말이 사건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 ② ㉡: 현대 국어의 ‘어리다’와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 ③ ㉢: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자를 나란히 적었다.
- ④ ㉣: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가 있었다.
- ⑤ ㉤: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에 옮겨 표기하였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흄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 흄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흄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상은 오감(五感)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 등을 말하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에, ‘짜다’와 ‘희다’ 등의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 한다. 흄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황금’과 ‘소금’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흄은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흄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 관계는 필연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야기했다.’라는 생각은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흄은 비판하였다.

또한 흄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事實)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하지만 흄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한다. 그런데 흄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흄의 입장이다.

이처럼 흄은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히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 사조에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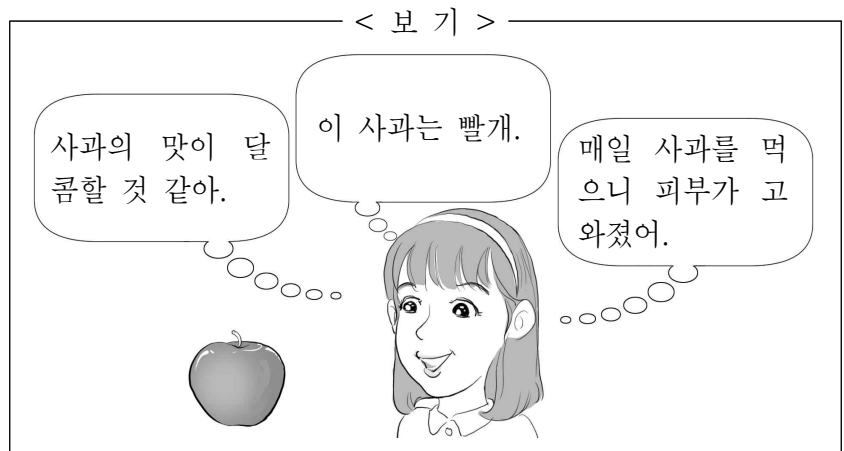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 ②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흄은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중시하였다.
- ④ 흄은 합리론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 ⑤ 흄은 인상을 갖지 않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17. [A]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상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 ②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탐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③ 실제 세계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④ 주관적 판단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⑤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18. 윗글에서 언급된 ‘흄’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에 해당한다.
- ②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끼는 것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 ③ 사과의 실제 색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과는 빨개.’라는 생각은 ‘내 눈에는 이 사과가 빨갱게 보여.’라는 의미일 뿐이다.
- ④ 사과를 먹는 것과 피부가 고와지는 것 사이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 ⑤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라는 생각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

19. <보기>의 사례를 통해 ‘흙’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아래 그림과 같이 무채색을 명도의 변화에 따라 나열한 도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도표의 한 칸을 비워 둔 채 어떤 사람에게 “5번 빈칸에 들어갈 색은 어떤 색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그 사람은 빈칸에 들어갈 색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변 색과 비교하여 그 색이 어떤 색인지 알아맞췄다.

- ① 세계는 우리의 감각 기관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단순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 ③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필연성을 갖게 된다.
- ④ 관념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 ⑤ 외부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 서정 시가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가 계승되거나 새롭게 변용, 창조되면서 문학적 전통을 이어왔다. 서정 시가의 전통은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3음보, 또는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규칙적인 음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용적 측면에서는 한(恨)의 정서,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 이상향 추구 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의 「초부가(樵夫歌)」는 4음보를 바탕으로 산간에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면서 부르던 민요이고, (다)의 「길」은 3음보를 바탕으로 나그네의 처지를 노래한 현대시이다. (나)와 (다)는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 서정 시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나무하러 가자 이히후후* 에헤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고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 이런 팔자 어이하리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사자 하니 고생이라
 세상사 사라진들 치마 짧은 계집 있나
 다박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논이 있나
 사래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떡신도 짝이 있는데
 쟁이* 같은 내 팔자야 자탄한들 무엇하리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 기력아
 너도 또한 입을 잃고 임 찾아서 가는 길가

[A]

[B]

더런 놈의 팔자로다 이놈의 팔자로다
 언제나 면하고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 술 줄 놈이 있나
 가자 이히후후

[C]

— 작자 미상, 「초부가(樵夫歌)」 —

- * 이히후후: 나무를 할 때 내뿜는 한숨 소리.
- * 사모: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
- * 만석록: 만 석의 녹봉.
- * 쟁이: 곡식을 까불러 쟁정이 등을 골라내는 ‘키’의 방언.

(다)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왈가왈 울며 새웠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곽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 정주(定州) 곽산(郭山): 김소월의 고향.

* 바이: 아주 전혀.

20.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고’에서는 4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나)의 ‘지게 목발 못 면하고’를 통해 작품 속의 화자가 나무꾼임을 알 수 있군.
- ③ (나)의 ‘사자 하니 고생이라’에서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한의 정서를 엿볼 수 있군.
- ④ (다)의 ‘어제도 하로밤/나그네 집에’에서는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이 두 행에 걸쳐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나무하러 가자’와 (다)의 ‘산으로 올라갈까’에서는 모두 이상향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1.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통해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상응의 시상 전개를 통해 구성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화자에게 삶의 깨달음을 주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심정을 위로해 주는 대상이다.

23.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빈부와 귀천의 불평등한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② [B]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체념적인 어조를 활용하여 고생을 면할 기약이 없는 삶을 한탄하고 있다.
- ④ [A]와 [C]는 고된 노동을 할 때 내뿜는 한숨 소리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A] ~ [C]는 모두 짝이 있는 물건을 열거하며 화자의 애상감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길’은 목적지를 향한 길일 수도 있고,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길일 수 있으며, 지향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길일 수도 있다. 김소월의 「길」은 이와 같은 길의 속성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 삶의 터전인 고향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비애를 길과 연결된 다양한 공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나그네 집’에 ‘어제도’ 머물렀던 것은 목적지를 잃은 화자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화자의 비애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정주 객산’은 지향점이지만 ‘오라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열십자 복판’은 화자가 되돌아가고 싶은 원점으로서 화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갈린 길’은 일제 강점기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집안은 일찍부터 논이나 밭떼기 한 두령도 가져 본 적 없었으므로, 아버지는 낫이나 호미 자루 한 번 잡아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정한 직업을 가져 본 적도 없었다. 일 년을 따져 평균 아홉 달은 집을 떠나 어디론가 떠돌아 다녔고, 집에 붙어 있는 나머지 달은 낚시로 소일했다. 이태 전 봄까지만도 우리는 읍내 거리 장마당 부근에 살았다. 그때 역시 엄마는 근동 장터를 떠돌며 어물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읍내에서 사 킬로 정도 떨어진 지금 우리가 사는 주남 저수지에 낚시를 다니며, 늘 집 떠날 궁리만 하고 지냈다. 새마을 도로가 확장되는 통에 우리가 세 든 읍내 장터 집이 헐리게 되자, 아버지는 엄마를 졸라 주남 저수지 옆 민 씨 별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주남 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철새 도래지 아인가. 내가 새를 무척 좋아하거덩.”

아버지가 말했다.

“㉠ 당신이사 땅으로 걸어댕기는 철새인게 날아댕기는 철새가 좋겠지예. 그런데 새 구경하는 거도 좋지만 그 구경 댕기모 밥이 생기요 떡이 생기요?”

엄마는 말도 되잖은 소리란 듯 한숨을 내쉬며 돌아앉고 말았다.

“그거 말고도, 관리인 민 씨 말이 타지에서 오는 낚시꾼들 뒷바라지나 해 주모 찬값 정도는 번다 안카나…….”

엄마는 그쪽으로 이사하면 당장 장사 다니는 길이 먼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집에 눌러 있을까 싶었던지 그 말에 선선히 동의했다. 그러나 주남 저수지 쪽으로 이사 와서 보름을 채 못 넘겨 아버지는 슬그머니 집을 떠나고 말았다. 부산과 마산의 낚시꾼들이 떡밥은 물론 술이며 안주 접시까지 심부름시키는 데 아버지는 더 참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더러운 세상, 나쁜 놈들이라며 전에는 입에 담지 않던 욕설을 술김에 종종 뱉더니, 기어코 그 떠돌이 병에 발동이 걸렸다. 늘 궁금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집을 떠나 떠돌 동안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여름이 끝날 무렵에서야 아버지는 돌아왔다. 그 행려 끝에 무슨 결심을 굳혔는지 돌배산 자락을 덮은 민 씨네 대나무 밭의 굵은 대 몇 그루를 찢어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더러 방패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 번도 없던 짓거리였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햇빛에 말려선, 장두칼로 다듬고, 한지에 바람 구멍을 뚫어, 거기에 다섯 개 댕개비를 붙여 방패연을 만드는 솜씨는 아버지가 지닌 유일한 기술 같아 보였다. 천장 가운데 태극무늬나 붉은 원을 오려 붙여 만든 연이 큰 놈은 두 번 접은 신문지만 했고 작은 놈은 교과서만 한 크기도 있었다.

“㉡ 겨울도 아인데 그 많은 연을 어데다 팔라 캡니꺼?”

내가 물었다.

“머 꼭 돈이 목적이라서 댕그나. 쓸모없어도 댕글고 싶으이께 댕글제. 참새가 날라 카모 기러기만큼 와 하늘 높이 몬 날겠노. 먼 데꺼정 갈 필요가 읍으이께 지 오를 만큼 오르코 말지려.”

아버지가 쓸데없이 비유까지 곁들여 말했다.

“옛적에 연 댕글어 졌다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댕글어예?”

“사람은 어데 갈 목적이 읍어도 어떤 때는 연댕크로 그냥 멀리로 떠나 댕기고 싶은 꿈이 있는 기라. ㉢ 그런 꿈 읍이 일만 하는 사람은 꼭 개미 같아. 사람은 개미가 아이잖나.

돈 벌라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사람을 보모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지러. 그 사람들이 보모 **내 같은 사람이 쓸모없이 보일란지 몰라도.....**.”

아버지가 어설픈 미소를 띠어 보였다.

“목고살기 바쁘모 그래 산천 구경하고 싶어도 몬 떠나는 거 아입니까.”

하며,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그렇기사 하겠제. 그라고 보모 나는 아매 떠돌아댕기는 팔자를 타고났나 보제.”

아버지가 시무룩이 말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와 아버지는 낚시꾼들에게 방패연을 팔러 가지만 연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 그 무렵 아버지는 훌쩍 또 집을 떠나고, 장마가 시작된 여름밤에 다시 돌아온다. 나는 장사가신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장터로 간다.

너성이 다시 한차례 하늘 복판에서 쪼개졌다. 엄마는 흠칫 어깨를 떨었고, 나는 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놀람으로 무심결에 자전거 핸들을 눌러 잡았다.

“짜대기라 켜나? 그라몬 어데 다쳤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늘 배창자가 아프다더니 속병이 생긴 게로구나. 객지로 돌아댕기며 굶기도 오지게 굶었을끼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 참, 양식 떨어졌을 긴데 너그들 저녁밥은 우쨌노?”

“장 씨 집에서 라면 두 봉지 켜다 묵었지예.”

“아부지는?”

“읍내서 묵고 왔다 갑디더.”

자전거 짐받이에 얹힌 함지박을 고무줄로 묶고, 나는 천천히 자전거를 몰았다. 함지박 쪽에서 쿼쿼한 비린내가 코끝을 따라왔다. 그 냄새는 이미 후각에 익은 엄마의 냄새이기도 했다.

“㉡ 엄마, 자전거에 타예. 그라몬 퍼뜩 갈 수 있을 긴데.”

다른 때 같으면 사양했을 엄마가 오늘따라 아무 말없이 안장 앞쪽 파이프에 머릿수건을 깔고 올라앉았다. 내색은 않았지만 엄마 역시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은 모양이었다. 힘주어 페달을 밟자 엄마 온몸에서 풍겨 나는 비린내가 내 쪽으로 훑어왔다.

“쫓쫓, 그래도 숨질이 붙었으몬 **더러 처자속은 보고 싶은지 집구석이라고 찾아드니.....**. 원쭈도, 그런 원쭈가 어딴노. 그런 남정네가 이 시상에 땀이나 뿜꼬. 그래 굶으미 맥 놓고 떠돌아댕기도 우째 안죽 객사를 안 하는공 모리쨌데이.”

엄마는 한숨 끝에 아버지를 두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퇴약별 아래 장터마다 싸다니느라 까맣게 그을린 엄마 얼굴을 떠올리자, 나는 공연히 코허리가 쩡하게 쓰렸다. 엄마는 키가 작고 몸매가 깡마른데다 살결이 검어, 볼 때마다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이 마음 귀통이에 그늘을 만들었다. 그럴 적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한 반사적으로 감정을 자극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감정은 증오라기보다 썰물이 되어 당신을 내 옆에서 멀리로 밀어내는 작용을 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엄마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여겨졌다. 다만 **순환의 법칙을 좇아** 한때의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으로 녹아, 끝내 **밀물**이 되어 엄마 여윈 마음을 다시 채워 주리란 점만이 다를 뿐이었다.

— 김원일, 「연(鰲)」—

25.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면마다 다른 서술자를 설정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가 중심인물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장면을 전환하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저수지 근처로 이사를 가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의 푸념이 담겨 있다.
- ② ㉡: 뜬금없이 많은 연을 만드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 하는 ‘나’의 심리가 담겨 있다.
- ③ ㉢: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 ④ ㉡: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⑤ ㉢: 아버지의 끼니를 염려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빨리 모셔가려는 ‘나’의 의도가 담겨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역마살을 타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아버지의 삶과, 생계를 책임진 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주요 소재인 ‘연’은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연줄로 ‘얼레’에 매여 있어 지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연’과 ‘얼레’의 이러한 속성은 이리저리 떠돌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삶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① ‘장터를 떠돌며 어물 장사를’ 하는 것에서,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사는 어머니의 삶을 엿볼 수 있어.
- ② ‘목적이 읊어도 어떤 때는 연맨크로 그냥 멀리로 떠나 댕기’는 삶에 대해 말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연처럼 자유롭게 떠돌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내 같은 사람이 쓸모없이 보일란지 몰라도’라고 말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역마살로 인해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 ④ ‘더러 처자속은 보고 싶은지 집구석이라고 찾아’든다는 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얼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순환의 법칙을 좇아’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이 되어 ‘밀물’처럼 마음을 채워 준다는 부분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안고 사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再現)하는 역할을 사진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화가들은 회화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였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적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네는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빛의 효과에 주목했다. 그 결과 빛에 의한 대상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여 대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 내었다. 그에 따라 그림에 거친 붓 자국과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 바른 듯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기법은 그가 사실적 묘사에 더 이상 치중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네 역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재현 위주의 사실적 회화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였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은 “회화에는 눈과 두뇌가 필요하다. 이 둘은 서로 도와야 하는데, 모네가 가진 것은 눈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회화란 지각되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세잔은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두 눈으로 보는 세계를 평면에 그리려고 했다. 그는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이중 시점을 적용하여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하였고, 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하였다. 또한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위해 대상의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운 정물화를 선호하였다.

세잔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물은 본질적으로 구, 원통, 원뿔의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회화에서 구현하기 위해 그는 이중 시점에서 더 나아가 형태를 단순화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 하였고, 윤곽선을 강조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하였다. 회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 그의 이러한 화풍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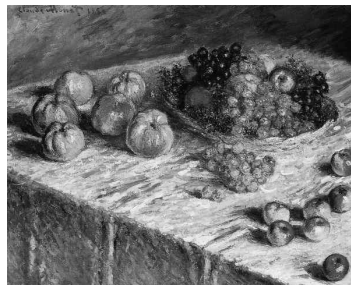
- ① 사진은 화가들이 회화의 의미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전통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시했다.
- ③ 모네의 작품은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 ④ 모네는 대상의 고유한 색 표현을 위해서 전통적인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 ⑤ 세잔은 사물이 본질적으로 구, 원통, 원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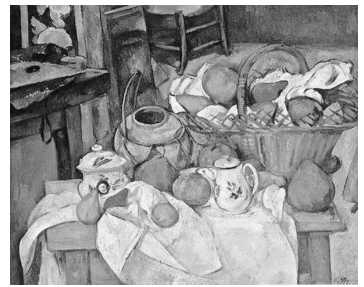
— < 보 기 > —

선생님: (가)는 모네의 「사과와 포도가 있는 정물」이고, (나)는 세잔의 「바구니가 있는 정물」입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모네와 세잔의 작품 경향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화가의 작품 경향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해 볼까요?

(가)



(나)



- ① (가)에서 포도의 형태를 뚜렷하지 않게 그린 것은 빛에 의한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 ② (나)에서는 질서 있게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상이 선택되고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 ③ (가)와 달리 (나)에 있는 정물들의 뚜렷한 윤곽선은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 ④ (나)와 달리 (가)의 식탁보의 거친 붓 자국은 대상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 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 ⑤ (가)와 (나) 모두 사물을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을 통해 사실적인 재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군요.

30.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세잔의 화풍을 ㉠과 같이 평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입체파 화가들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단순화한 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하였다가 화폭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한 화폭에 담아내려 하였다.

- ①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 ② 대상을 복잡한 형태로 추상화하여 대상의 전체적인 느낌을 부각하는 방법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 ③ 사물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전통적 원근법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변용시켰기 때문에
- ④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대상의 인상을 그려 내는 화풍을 정립하였기 때문에
- ⑤ 지각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사물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기법을 창안하였기 때문에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선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 편익: 편리하고 유익함.

* 공공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뒤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개념을 그와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 ④ 통념을 반박하며 대상이 가진 속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 ② ㉡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은 ㉡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④ ㉡은 ㉠과 달리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다.

33.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여러분, 아래 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 B, C의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를 보고 조세의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자 분석해 볼까요?

구분	소득 (만 원)	세율 (%)	공제액 (만 원)	납부액 (만 원)	공제 항목
A	3,000	5	0	150	공제 없음
B	3,000	5	100	50	부양가족 2인
C	4,000	10	100	300	부양가족 2인

성근: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ㄱ

수지: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것이네요. ㄴ

현욱: B와 C의 납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에요. ㄷ

유미: B의 세율이 5%이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을 위한 누진세가 적용된 결과겠네요. ㄹ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90. 전철역 안/오후

경숙, 비틀거리며 뒤편에 있는 의자로 가서 앉는다. 점점 일그러지는 그녀의 표정. 조금씩 새어 나오는 신음 소리. 배를 움켜쥔 손. 의자로 점점 기울어져 눕다시피 되는 경숙. 점점 흐려지는 눈빛.

(플래시백*)

동물원의 인파 속에 서 있는 젊은 경숙과 어린 초원. 초원은 한쪽 손에 풍선을 들고 멍하게 서 있고, 경숙은 초원의 손을 잡고 있다. 우울한 표정의 경숙, 초원을 바라보고 서 있다. ㉔ 스르륵 풀리는 초원의 손. 초원, 사람들 틈으로 마술처럼 사라진다.

S#93. 병원 병실/밤

경숙 이왕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뭐 하나라도 즐길 수 있는 거, 살아 있다는 기분 느낄 수 있는 거 하나쯤 엄마가 만들어 주고 떠나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고 꿈꾸고 위로받고 있는 거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멋대로 굴러 가면서. 하지만 그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럼 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 (눈물을 떨군다) 애가 기억하더라구. 옛날에 동물원에서 잃어버렸던 걸..... 기억나지 당신도? 사실은 말야, 그때, 내가 초원이를 버렸던 거야. 사람들 틈에서 손을 놓았지.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제 살자고 애를 버렸던 엄마가, 이제 또 제가 살려고 애를 그렇게 한평생 못살게 군 거야.

최근 당신 그때 스물일곱이었어.

경숙 지금은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 애가 힘들어도 힘들단 소리를 안 한대. 내가 늘 그랬거든. 초원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지? 힘들지 않지? 좋지? 좋아하지? 십오 년을 그렇게 애를 다그쳤어. 그래서 이젠 힘들다, 하기 싫단 말을 아예 못 해. 어떡하지? 우리 초원이 불쌍해서? 어쩔, 초원이는 엄마가 자길 또 내버릴까 봐, 그렇게 열심히, 힘들단 소리도 못 하고 지금껏 산 거 아닐까, 여보? 어떡하지? 그럼 나 정말 지옥 갈 거야, 그치?

S#94. 병원 정원/낮

정욱 예전에 초원이 마라톤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달려 보지도 않고 그딴 소리하지 말라고 한 거 기억나요?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경숙에게 진지하게 계속 말하는 정욱.

정욱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직접 뛰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승부를 위해, 기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뛰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땐 멈추고 싶죠. 그리고 멈춰 서 있으면..... 그 느낌은 쉽게 까먹어요. 그럼 영영 다시 뛸 수 없죠. (경숙을 바라보며) 제가 페이스메이커 할게요. 같이 뛸다구요.

경숙 하지만, 우리 앤 달라요, 남들과 달라요. 똑같지 않다가요! 그걸 깨닫는 데 20년 걸렸어요. 바보처럼..... 그깟

200시간으로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렵도 없어요. 애 맘을 아냐구요? 그걸 알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큰 목소리로) 가세요! 이젠, 안 해요! 내가 그놈의 걸 알 때까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마라톤 안 해요!

S#95. 몽타주

- 학교로 가는 승합차에 올라타는 초원. 차에 타기 전 아파트를 올려다보지만 엄마가 늘 손 흔들어 주던 자리엔 아무도 없다.㉕
- 병원에서 탁상 달력을 바라보는 경숙. 10월 10일 날짜에 눈이 간다. 미련을 버리려는 듯, 텔레비전을 켜다.㉖
- 아파트 복도 구석에 앉아 정욱이 사준 얼룩말 러닝화를 박스에서 꺼내 보는 초원. 냄새를 킁킁 맡아 본 후, 다시 박스에 넣는다.㉗

[중략 부분 줄거리] 경숙은 퇴원하고, 초원은 정욱에게 마라톤 훈련을 받지 않으나 깊은 밤 운동장을 스스로 달린다. 10월 10일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초원은 혼자 대회 현장으로 향한다. 초원이 사라지자 놀란 경숙과 동생 중원은 초원을 찾아 나서고, 대회 현장에서 초원을 발견한다.

S#101. 춘천 공설 운동장/아침

경숙, 초원을 잡아끌지만, 초원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경숙 너 뛰다가 쓰러지면 또 주사 맞잖아. 주사 맞을 거야?
초원 (머뭇거리다가 이내) 안 쓰러져. 초원이 안 쓰러져.

그 순간 ‘타양’ 울리는 출발 총성. ‘와아’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물밀 듯이 밀려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손을 붙잡은 채, 서로 노려보고 있는 초원과 경숙.

중원 (가운데에 서서 간절한 표정으로) 엄마!

경숙 초원아, 나중에 오자. 오늘은 안 돼. 너 혼자선 안 돼.

초원 모자와 거칠게 부딪치면서 출발하는 사람들. 달려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초원과 경숙. 하지만 초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경숙.

경숙 초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이런 거 안 시킬게.

초원 초원이 다리는.....

경숙, 숨이 멎는 듯

초원 초원이 다리는.....?

경숙 (경숙의 눈가가 젖어 들고) 백만 불짜리 다리.....

어느새, ㉘ 스르르 손이 풀리고, 초원은 바람처럼 균중들 틈으로 사라진다.

— 정윤철, 윤진호, 송예진 각본, 「말아톤」 —

* 플래시백: 영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도중 과거 시간대의 장면을 삽입하는 기법.

34. 윗글을 영화로 연출하기 위한 연출자의 주문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93에서 경숙이 말할 때, 자책감을 담아낼 수 있는 표정으로 연기해 주세요.
- ② S#94에서 정욱이 경숙을 설득할 때, 진지한 태도가 드러나는 어조로 대사를 해 주세요.
- ③ S#94에서 경숙이 정욱의 제안을 거절할 때, 감정을 억누르려는 차분한 목소리로 연기해 주세요.
- ④ S#101에서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는 상황일 때, 생생한 현장감이 부각될 수 있는 효과음을 넣어 주세요.
- ⑤ S#101에서 초원과 경숙이 대화할 때, 마라토너들은 일시에 그들의 주변을 빠르게 지나쳐 가도록 해 주세요.

35. <보기>를 감독의 인터뷰라고 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S#95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S#95에서 몽타주 기법을 사용한 것은 장면과 장면을 연결해 주면서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장면만으로는 보여 줄 수 없었던 사건의 진행 과정과 인물의 심리를 관객들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여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① ㉠은 S#90과 연계된 S#93에서 경숙이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초원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게 하는군.
- ② ㉡은 S#94에서의 대사와는 달리 초원의 마라톤 대회 참가에 대해 경숙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군.
- ③ ㉢은 S#101에서 마라톤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초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을 통해 초원과 경숙의 모습을 대비하여 S#101에서 중원에 의해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나타내는군.
- ⑤ ㉠~㉢을 나열한 것은 초원과 경숙의 일상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속도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군.

36. ㉠과 ㉢을 연계하여 초원에 대한 경숙의 인식 변화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에서 의지를 지닌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소외된 존재에서 남을 위해 애쓰는 대견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가가기 어려운 고독한 존재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살가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르침에 잘 따르는 순종적인 존재에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야속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함께하며 위안을 얻는 존재에서 뒤늦게 속마음을 알게 되어 미안함을 느끼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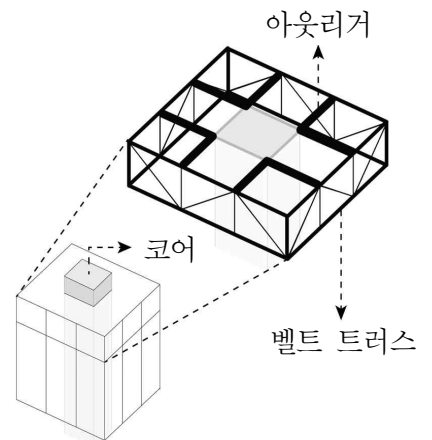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에 ㉠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 있다. 수직 하중은 건물 자체의 무게로 인해 땅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수평 하중은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해 건물에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수직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 고안된 가장 단순한 구조는 ㉢ 보기둥 구조이다. 보기둥 구조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 지르는 수평 구조물인 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바닥판을 놓은 구조이다. 보기둥 구조에서는 설치된 보의 두께만큼 건물의 한 층당 높이가 높아지지만, 바닥판에 작용하는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지 않고 보에 의해 ㉣ 분산되기 때문에 수직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수직 하중과 달리 수평 하중은 사방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수직 하중보다 훨씬 크다. 수평 하중은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데, 바람은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풍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을 크게 만든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 공명 현상*이 발생하면 건물이 매우 크게 흔들리게 되어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건물이 수평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뼈대에 해당하는 보와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붙여야 하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수평 하중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 코어 구조이다. 코어는 빈 파이프 모양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물 중앙에 세운 것으로, 코어에 건물의 보와 기둥들을 강하게 접합한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수평 하중에도 불구하고 코어로 인해 건물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은 그 높이가 높아질수록 수평 하중이 커지고 그에 따라 코어의 크기도 커져야 한다. 코어 구조는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의 초고층 건물은 ㉥ 코어에 승강기나 화장실, 계단, 수도, 파이프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코어 구조만으로는 수평 하중을 완벽하게 견뎌 낼 수 없다. 그래서 ㉦ 아웃리거-벨트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여 코어 구조를 보완한다. 아웃리거-벨트 트러스 구조에서 벨트 트러스는 철골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 기둥들을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짜서 벨트처럼 둘러싼 것으로 수평 하중을 ㉧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외부 기둥들을 연결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철골 접합부를 통해 전체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코어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웃리거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벨트 트러스를 내부의 코어와 ㉨ 견고하게 연결한 것으로,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



는 필요에 따라 건물 중간중간에 여러 개가 설치될 수 있다.

그런데 아웃리거는 건물 내부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어서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방해가 된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 아웃리거를 기계 설비층에 설치하거나 층과 층 사이, 즉 위층 바닥과 아래층 천장 사이에 설치하기도 한다.

초고층 건물은 특수한 설비를 이용하여 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을 줄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TLCD, 즉 동조 액체 기동형 댐퍼이다. TLCD는 U자형 관 안에 수백 톤의 물이 채워진 것으로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 중앙에 설치한다. 바람이 불어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물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원래의 자리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건물이 기울어진 반대 쪽에 있는 관의 물 높이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그 관의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도 커지고, 이로 인해 건물을 기울어지게 하는 힘을 약화시켜 흔들림이 줄어들게 된다. 물이 무거울수록 그리고 관 전체의 가로 폭이 넓어질수록 수평 방향의 흔들림을 줄여 주는 효과가 크다. 하지만 그에 따라 수직 하중이 증가하므로 TLCD는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 공명 현상: 진동체가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부의 힘을 받아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

37.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직 하중은 수평 하중과 달리 사방에서 건물에 가해지는 힘이다.
- ② 건물이 높아질수록 건물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은 증가한다.
- ③ 보기둥 구조에서 보의 두께는 한 층당 높이에 영향을 준다.
- ④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풍속이 빨라진다.
- ⑤ 공명 현상은 건물에 가해지는 수평 하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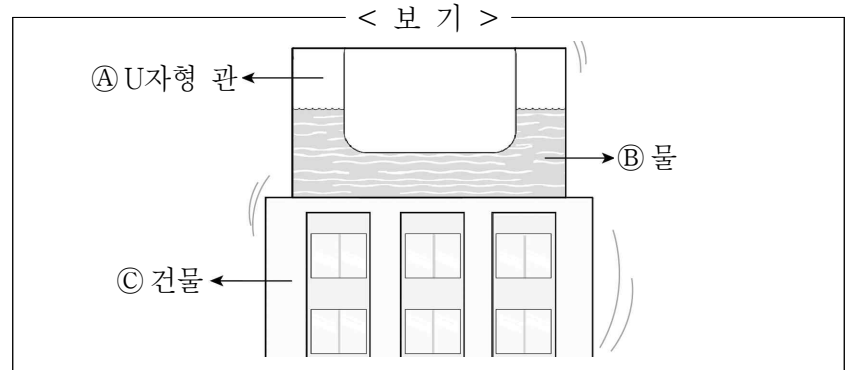
38. ㉠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수평 구조물 위에 바닥판을 놓는 구조이다.
- ② ㉠에서 보는 건물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한다.
- ③ ㉡에서 코어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그 크기가 커져야 한다.
- ④ ㉢에서 트러스는 아웃리거와 코어의 결합력을 높여 수평 하중을 덜 받게 한다.
- ⑤ ㉡과 ㉢을 함께 사용하면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을 견디는 힘이 커진다.

39. 문맥을 고려할 때, ㉡와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물의 외부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 ② 건물의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 ③ 건물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 ④ 건물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 ⑤ 필요에 따라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40. [A]를 바탕으로 <보기>의 'TLC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B는 원래의 자리에 있으려 할 것이다.
- ② A가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 관에 있는 B의 높이가 왼쪽보다 높아질 것이다.
- ③ A 전체의 가로 폭이 넓어질수록 C가 수평 하중을 견디는 효과가 작아질 것이다.
- ④ A 안에 있는 B의 양이 많을수록 C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증가할 것이다.
- ⑤ A에 채워진 B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C의 수평 방향의 흔들림을 줄여 주는 효과가 클 것이다.

41. a ~ c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 ② b: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냄.
- ③ c: 갈라져 흩어짐.
- ④ d: 어떤 상태나 현상을 그대로 보존함.
- ⑤ e: 굳고 단단함.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군관 직책의 배비장은 제주 목사가 벌인 잔치에 자신은 여색을 멀리한다며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제주 목사는 기생 애랑을 시켜 배비장을 유혹하게 하고, 애랑은 자신에게 반한 배비장에게 삼경에 집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낸다.

강호에 병이 들어 텅없이 죽겠더니, 낭자 회답이 반갑도다. 삼경에 기약 두고, 해 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물어 간다. 방자 입시(入侍) 보내고 빈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보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외울 망견 정주 탕건, 쾌자, 전립 관대 띠에 동개*를 차 제법 그럴싸하고 빈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런거리며 연습 삼아 하는 말이,

“가만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 앞에 들어서며 기침 한 번을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기척 채고 문을 필쩍 열것다. 걸음을 한번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 옛말에 이르기를, ‘수인사(修人事) 대천명(待天命)이라.’ 하니, ㉠ 여자에게 한 번 이렇게 군대의 예절로 보렸다.”

한창 이리 연습할 제, 방자놈이 뜻밖에 문을 필쩍 열며, “나리, 무엇하오?”

배비장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예, 군례 전에 대령하였소.”

“㉡ 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하며 동개한 채로 썩 나서니, 달이 진 산에 까마귀 울고, 고기 잡이 불빛이 물에 비친다. 앞개울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봄 바람에 학이 운다.

“앞서 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찾아가자.”

거들거려 가려 할 제 방자놈 이른 말이,

“나으리, 생각이 전혀 없소. 밤중에 유부녀 희롱 가오면서 비단 옷 입고 저리 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니, 그 의관 다 벗으시오.”

“벗으면 초라하지 않겠느냐?”

“초라하거든 가지 마옵시다.”

“이 애야, 요란히 굴지 마라. 내 벗으마.”

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어떠하냐?”

[A] “그것이 참 좋소마는, 누가 보면 한라산 매 사냥꾼으로 알겠소. 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인물 복색은 어떤 것이냐?”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를 쓰시오.”

“그것은 너무 초라하구나.”

“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말인즉 그러하단 말이다. 개가죽이 아니라, 도야지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하더니, 구록피(狗鹿皮)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를 쓰고 나서서 앞뒤를 살펴보며,

“이 애야, 범이 보면 개로 알겠다. 군기총(軍器銃) 하나만 내어 들고 가자.”

“무섭거든 가지 마옵시다.”

“이 애야, 그러하단 말이냐? 네 성정 그러한 줄 몰랐구나.

㉢ 정 못 갈 터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배비장이 뒤따라가며 하는 말이,

“기약 둔 사랑하는 여자, 어서 가 반겨 보자.”

서쪽으로 낸 대나무로 엮은 창 돌아들어, 동쪽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뗏돌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켜 등불 하나만이 외로이 섰는데, 밤은 깊은 삼경이라. 높은 담 구멍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들며,

“쉬, 나리 잘못하다가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테 모아 요령 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옹게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민다.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 쥐고 힘껏 잡아당기니, ㉣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구나.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놓아다고!”

하면서, **죽어도 문자(文字)는 쓰던 것이었다.**

“포복불입(飽腹不入)하니 출분이기사(出糞而幾死)로다.*”

방자가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하였다가 일어나 앉으며 하는 말이,

“매사가 순리로 아니 되니 큰 낭패로다. 산모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 하니, 내 상투를 들이밀 것이니 잘 잡아당겨라.”

방자놈이 배비장의 상투를 노평거지 쓴 채 왈각 잡아당기나, 아무리 하여도 나온 줄 모르겠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 목숨은 원래 하늘에 달렸음이라. 뽕 하고 들어가니 배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 하고,

“㉤ 어허, 아마도 내 등에는 끈질끈자판*을 놓았나 보다.”

(중략)

배비장이 한편 좋기도 하고 한편 조심도 되어, **가만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문 앞에 가서 사뿐사뿐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 구멍을 배비작 배비작 뚫고 한 눈으로 들여다보니, 깊은 밤 등불 아래 앉은 저 여인, 나이 겨우 이팔의 고운 태도라, 커 놓은 등불이 밝다 한들 너를 보니 어두운 듯, 피는 복숭아꽃이 곱다 하되 너를 보니 무색한 듯, **저 여인 거동 보소** 김해 간죽 백통관에 삼등초를 서뽕 담아 청동화로 백탄 불에 사뽕 질러 빨아낸다. 향기로운 담배 연기가 한 오라기 보랏빛으로 피어나니 붉은 안개 피어 돌는 듯, 한 오리 두 오리 풍기어서 창 구멍으로 돌아 나온다. 배비장이 그 담뱃내를 손으로 움켜 먹다가 생 담뱃내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재채기 한 번을 악각 하니, 저 여인이 놀라는 체하고 문을 필쩍 열뜨리고,

“도적이야.”

소리 하니, 배비장이 엉겁결에,

“문안드리오.”

저 여인이 보다가 하는 말이,

“㉥ 호랑이를 그리다가 숨쉴 서툴러서 강아지를 그림이로고, 아마도 뉘 집 미친개가 길 잘못 들어 왔나 보다.”

인두판으로 한 번 지끈 치니 배비장이 하는 말이,

“나는 개가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배 걸덕쇠요.**”

— 작자 미상, 「배비장전(裵裨將傳)」 —

* 동개: 활과 화살을 찬 주머니.

* 노평거지: 노끈으로 만든 병거지.

* 포복불입(飽腹不入)하니 출분이기사(出糞而幾死)로다.: 배가 불러 들어갈 수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 끈질끈자판: 고누판. ‘고누’는 장기와 비슷한 옛날의 놀이.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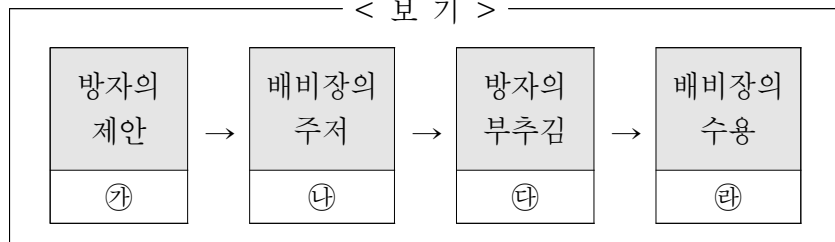
< 보 기 >

「배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리듬감이 있는 율문체를 통해 당대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 주인공이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남성 훼손형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서사 구조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내고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대 시대상 등을 반영하고 있다.

- ① ‘가만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에서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인물의 행동을 리듬감 있게 묘사하는 율문체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저 여인 거동 보소’라는 표현에서 청중을 향한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배비장이 방자에 의해 ‘구록피 두루마기에 노평거지’까지 쓰면서 훼손한 상황에서 서민 계층에 의해 조롱당하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담 구멍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죽어도 문자는 쓰’는 배비장의 모습을 통해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자마자 ‘배 걸덕쇠요.’라고 격식을 차리며 말하는 데서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

43. [A]의 재담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에서 방자는 배비장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
- ② ㉡에서 배비장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며 반응하고 있다.
- ③ ㉢에서 방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 ④ ㉣에서 배비장은 방자의 말에 할 수 없이 호응하고 있다.
- ⑤ ㉠ ~ ㉣에서 방자가 대화를 주도하며 재담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4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애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배비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 방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들켰을까 봐 당황하는 배비장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 애랑을 만나고 싶어 하는 배비장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 방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배비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 배비장의 정체를 알고도 짐짓 모른 채하는 애랑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45. ㉣의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퇴양난(進退兩難)
- ② 중과부적(衆寡不敵)
-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 ④ 난형난제(難兄難弟)
- ⑤ 고장난명(孤掌難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